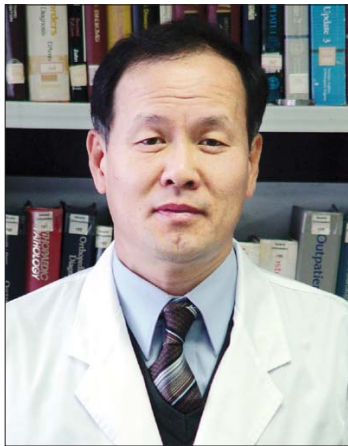


5·18 仁術 의사 '나눔' 실천 감동

문은선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타계 각막 기증 등 자신의 모든 것 주고 떠나



수부와 과학회, 국제외상학회 정회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대한 경주관절학회 회장과 수부학회 회장으로 의학회에 공헌했다. 특히 1980년 정형외과 레지던트

4년차로 전남대 병원에서 계엄군이 저지른 무차별 진압의 참상을 목격하고 분개하는 한편, 부상 환자의 치료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5·18 현장의 산 증인으로 알려져 있다. 동료 교수들은 문 교수가 수준 높은 의술을 더 많이 배울지 못하고 떠난 것을 안타까워했다. 송은규 전남대병원장은 "평소에 후배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문 교수가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눠주고 갔다"고 말했다. 한편 문 교수의 시신은 전남대병원 장례식장(062-220-6981)에 안치됐으며 영결식은 23일 오전 9시 30분 전남대 의과대학장으로 의과대학 명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980년 5월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부상자를 수술했던 의사가 5·18 31주년 기념주일에 각막을 기증하고 타계해 감동을 주고 있다. 흔한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세상을 떠난 주인공은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문은선 교수(향년 60세). 문 교수는 지난 11일 아침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전남대 중환자실에서 치료중 19일 오후 숨졌다. 가족들은 평소 문 교수가 "내가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무

조건 장기를 기증해달라"고 말했던 유지에 따라 모든 장기를 기증기로 결정했으나, 상태가 양호한 각막만 2명의 환자에게 기증하게 됐다. 문 교수는 1976년 전남대 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27년간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손과 어깨 주관절 질환 및 외상 분야를 담당했으며 정형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전남대병원 응급실장, 중앙수술실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골절학회, 대한정형외과초음파학회, 세계

공식위주 수학교육 없앤다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 수업

교과부 '공교육 강화안'

초중고 수학교육과 교육과정의 재미있고 쉽게 바뀌고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돕는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와 학부모 대상 수학교육 심이 운영된다. 영어는 실용영어 중심 수업이 확대되고 방과후학교의 영어교육도 교육과정과 교재가 개발돼 수업질이 높아진다. 방과후학교에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배리를 막기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2월 시안에 포함돼 화제가 된, 고교 수학기초에서 전자계산기를 허용하는 방안은 각계 논란을 감안해 이번 방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실용영어 중심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한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시수를 3·4학년은 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5·6학년은 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데 이어 중·고교에서 수준별 영어수업과 주 1회 회화 수업도 내실화한다. /연합뉴스



'5·18 골든벨 퀴즈' 5·18 민중항쟁 31주년을 맞아 19일 광주시 동구 조선포서체육관에서 열린 '5·18 골든벨 퀴즈'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이 답을 적은 메모판을 들어 올리고 있다. /나경우기자 mjna@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 결선없이 최다득표자로

위원회 잠정 결정... 1차서 후보 3명 압축

오는 9월에 치러질 조선대 총장 선거는 기존 직선제에 간선제가 가미되고,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 최다 득표자가 총장으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간선선거에서는 난립하는 후보로 인한 불필요한 대립과 경쟁을 줄이기 위해 최종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으며, 입후보자는 발전기금 3000만원을 내도록 했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올 초부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5차 회의를 거친 끝에 최근 제14대 총장 선출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이 안은 오는 23일 이사회 검토를 거쳐 늦어도 6월 이사회에서 결정된다. 선출 방안의 핵심은 직선제를 직·간선제 혼합형태로 전환함과 동시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결선투표를 실시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1차 투표만 실시하는 데 있다. 간선제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

회(29명)의 평가(30% 반영)=후보자 자격 심사 ▲간접선거인단(120명) 투표 결과(70% 반영) 등 두 가지 척도를 합산(100%)해 최종 후보 3명을 선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압축된 후보 3명은 기존 방식대로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선거 결과 1위와 2위 순위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한다. 대학 사회 갈등의 주 원인으로 지적받은 직선제를 일부나마 손질했다는 점과 결선 투표를 없애 선거과정에서의 구성원들의 이합집산함에 따른 반목과 갈등의 요소를 줄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번 총장선거에는 강동완 차대 보철과 교수, 박대환 독일어과 교수, 이계원 경영학부 교수, 조범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4명이 일찍이 출마의사를 보인 상태다. 여기에 서재홍 의대 병리학 교수, 임동운 의대 약리학 교수 등 2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강동완 교수는 대학 장기발전비전과 의료산업의 글로벌산업화 프로젝트 등을 내세워 30~40대 교수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박대환 교수도 지난 선거 출마를 통한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전호준 현 총장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직원 사이에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미혼모 학생들 위한 위탁교육시설 운영 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위탁교육시설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관내 미혼모 보호시설 2곳 중 가운데 1곳을 공모를 거쳐 이달 말까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위탁기관에 중·고교 과정 1학급씩을 마련, 빠르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시설 구축과 운영비, 교사 인건비 등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미혼모 학생은 서류상 학교 원적을 회복하는 조건으로 위탁기관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성적, 출석 등 학사관리는 대한학교인 용연학교(중·고교과정)와 돈보스코(고교과정)에서 맡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6분 해질 19시 33분 달뜨기 22시 29분 달지기 07시 40분

식중독 '주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다.

지역	기온	날씨
광주	흐림 18/27°C	
목포	흐림 17/25°C	
여수	구름많음 17/21°C	
나주	흐림 18/27°C	
완도	구름많음 16/24°C	
구례	흐림 16/27°C	
해남	구름많음 15/25°C	
장흥	구름많음 16/24°C	
순천	흐림 17/24°C	
영광	흐림 16/27°C	
진도	구름많음 16/24°C	
전주	흐림 18/28°C	
군산	흐림 17/26°C	
남원	흐림 17/28°C	
옥산도	흐림 13/20°C	

지역	종량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꽃가루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높음	경고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높음	경고	낮음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목욕		
남해 서부 앞바다	남동~남	0.5~1.0m	여수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1(토)	22(일)	23(월)	24(화)	25(수)	26(목)
날씨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구름
최저/최고	18/22	15/24	15/23	15/25	16/26	16/25

광주·전남북 주말 비 소식

주말과 휴일 광주와 전남·북은 흐리고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씨를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과 전주기상대는 "21일 광주와 전남은 흐리고 한 두 차례 비가 오겠고, 22일에도 오전 한 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21일 전북은 구름 낀 날씨를 보이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고 19일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해안과 일부 내륙지방에는 오전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빗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평년에 비해 1~4도 가량 높겠으며, 해상의 물결은 2m 미만으로 비교적 낮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꽃길공원의 아생화

향기 뽀뽀 해충 보호...산삼 효과 '봉삼'

(21) 백선 백선은 약 50~90cm 정도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운향과 식물이다. 목본류가 주를 이루는 운향과 중 유일한 초본식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다. 운향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향기를 분비해 해충으로부터 보호한다. 방향물질이 방출되어 영명으로 'gas plant'라고 불리는 백선은 뿌리의 모양이 봉황새를 닮은데다가 산삼과 유사한 효과가 난다고 하여 '봉삼'이라 부르기도 한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과장)



VITAL LO는 변혁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한국 합금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바이탈로

www.vdental.co.kr

믿을 수 있는 기업
VITAL LO

고객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치아 기능 상실의 고통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기업 VITAL LO입니다. VITAL LO는 경영효율화(무영업사원, 무지점망, 생산라인 자동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본사직판)을 통해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합리적인 판매방법을 개발하여 실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발명가적 개척정신으로 치과용 합금의 새로운 가치기준을 만들고 있는 VITAL LO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선택이 바뀌면 원가가 내려갑니다!
5월 특판(한시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판문의전화 : 062-225-2275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06호
전화 : 062-225-2275 / 팩스 : 062-226-2275

FDA KFDA GMP